

보도시점: 2023. 9. 27.(수) 배포 즉시 / 배포: 2023. 9. 27.(수)

새만금 산단 탄소중립 실현 가이드라인(지침) 마련

- 기업의 산단 입주 구상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검토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 -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김경안)은 9월 27일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(지침)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
 - 기업들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 사항과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,
 - 기업들이 입주 구상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고, 산단 '입주심사 사업제안서' 제출 항목에 '에너지 효율화 및 재생에너지 계획서'를 포함시켰다.
-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(지침)은 규제가 아닌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.
 -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과는 제고하기 위해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에너지 효율화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수준으로 수립된 것으로,
 - 산업통상자원부의 「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, 고효율 에너지 설비는 기계·전기, 폐열회수·활용 등을 위한 22개 설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, 동 설비 설치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 혜택 등도 명시했다.
- 한편,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*은 2029년까지 탄소배출량의 27%를 감축하고, 2040년까지 에너지자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.
 - *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산단 5·6공구(3,709천㎡, 약 110만평)를 대상으로 지정('22.7.)

- 새만금개발청은 산단 입주기업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지원을 위해 **통합관제센터와 에너지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*** 등을 추진 중이며,
- 산단 입주기업들이 **고효율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**하고, 공장 지붕·주차장·보도·인근 유희부지 등에 **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**해 나갈 계획이다.

<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사업 개요 >

- (총사업비) 235억원(국비 100%) / ○ (사업기간) '22년~'26년
- (주요 사업) 통합관제센터 및 스마트시설(에너지플랫폼, 계량기 등) 구축, 재생에너지 공급 계통연계(전력망), 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 등

- 이번 가이드라인(지침)은 정부의 **무탄소 에너지 강화정책**을 산단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지침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.
 - 지난 5월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**무탄소 에너지(CFE) 포럼**을 결성하였고, 대통령도 **국제연합(UN) 총회 기조연설(9월)**에서 '**무탄소 연합 결성**'을 제안하는 등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.
-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"새만금을 정부의 **무탄소 에너지 정책**을 적극 추진하고 실현하는 **선도지역**으로 만들겠다."라면서,
 - "입주기업들과의 **소통과 협력**을 통해 시범산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, 그 성과를 새만금산단 전체로 **확산**하여 **글로벌(세계) 산업 경쟁력**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개발전략국	책임자	과 장	박종민	(063-733-1360)
	신산업전략과	담당자	사무관	형찬우	(063-733-1365)

